



수산 · 환경

한국해양수산개발원(Korea Maritime Institute)

(137-851)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3동 1027-4 Tel. 02) 2105-2740 / Fax. 02) 2105-2759

목 차 : 지구촌 이슈 / 주요뉴스와 분석 / 간추린 지구촌 소식



지구촌 이슈

유럽 주요국의 냉동 대구 필렛 수입 현황

■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증가

- 유럽 각국에서 수입 냉동 대구 필렛(Frozen cod fillets)의 중국 제품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음
 - 올 상반기 동안 영국과 독일에서는 중국 냉동 대구 필렛 점유율이 1위를 차지하였으며 프랑스에서는 수입 점유율 1위인 노르웨이에 근접하고 있음
 - 더욱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증가는 3국 모두 수량과 금액면에서 전반적인 수입의 증대를 초래하였음

【 중국의 냉동 대구 필렛 점유율(1월~6월 수입량) 】

국 가	2005년	2006년
영국	18%	25%
독일	41%	43%
프랑스	19%	23%

자료 : Globefish

■ 유럽 주요국의 수입 현황

- 영국에서는 덴마크와 아이슬란드로부터의 수입량이 감소하였음
 - 2005년 상반기에 비해 올해 냉동 대구 필렛은 9% 증가한 4만 6천 톤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수입금액면으로도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한 수치로 나타났음

- 중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은 51%나 증가한 11만 톤으로 나타났으며, 이 수치는 덴마크와 아이슬란드의 수입량을 능가하는 수치임
- 이로 인해 덴마크로부터의 수입량은 작년에 9천 9백 톤으로 점유율 1위를 차지하였으나 올 상반기에는 8천 9백 톤으로 11%나 줄어든 수치로 2위로 하락하였음
- 또한 아이슬란드의 수입량 역시 13% 줄어든 8천 톤에 그쳤음

【 영국 냉동 대구 필렛 수입국(1월~6월 수입량) 】

단위 : 톤

국 가	2005년	2006년	%
중국	7,520	11,390	+51
덴마크	9,890	8,850	-11
아이슬란드	9,330	8,090	-13
기타	15,670	18,000	+15
총 합	42,410	46,330	+9

- 독일에서는 러시아연방으로부터의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였음
 -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영국에 비해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으며 전반적인 냉동 대구 필렛의 수입 역시 증가하였음
 -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전년 동기에 비해 9% 증가한 약 4천 톤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큰 수입량 증가를 보인 나라는 러시아연방으로 약 160% 증가한 1천 6백 톤으로 나타났음
 - 반면에 덴마크는 작년과 거의 변화 없는 1천 4백 톤을 유지하였음
 - 전체적으로 수량면에서는 5% 증가하였지만 금액면으로는 작년에 비해 10% 나 증가한 3천 9백 만 유로로 나타났음

【 독일 냉동 대구 필렛 수입국(1월~6월 수입량) 】

단위 : 톤

국 가	2005년	2006년	%
중국	3,670	3,990	+9
덴마크	1,370	1,390	+1
러시아연방	610	1,570	+157
기타	3,220	2,380	-26
총 합	8,870	9,330	+5

- 프랑스의 수입량은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영국과 독일처럼 프랑스의 냉동 대구 필렛의 수입량은 작년 동기에 비해 3% 증가한 8천 4백 톤으로 나타났으나 앞의 시장과는 달리 프랑스에서는 노르웨이로부터의 수입량이 가장 많음
 - 하지만 노르웨이는 작년에 비해 10% 증가한 반면 중국으로의 수입은 25% 증가한 1천 9백 톤으로 나타났음
 - 반면 아이슬란드의 경우 대구 생산량 감소로 인해 수입이 작년에 비해 37%나 줄어든 1천 톤을 수입하는데 그쳤음

【 프랑스 냉동 대구 필렛 수입국(1월~6월 수입량) 】

단위 : 톤

국 가	2005년	2006년	%
중국	1,520	1,900	+25
아이슬란드	1,587	1,000	-37
노르웨이	2,000	2,200	+10
기타	3,048	3,300	+8
총 합	8,155	8,400	+3

■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지속적 증가 예상

- 2006년 하반기는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증가로 인해 중국의 점유율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 유럽 시장에서 중국 냉동 대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은 지속적으로 수출 촉진을 위해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유럽 소비자들의 수요에 따른 다양한 가공 포장 개발을 통한 기술 개발을 활성화시킬 것으로 예상됨
 - 이로 인한 중국의 수출 증가로 향후 유럽시장에서 중국 냉동 대구 필렛의 점유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정명생, msjoun@kmi.re.kr>



주요뉴스와 분석

■ 중국, 우수리강의 중국측 수역에 금어기 설정

- 중국은 중-러 중첩하천인 우수리강(烏蘇里江)의 생태환경과 어업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수리강의 중국측 수역에 대해 10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금어기를 설정하였음
 - 이에 지난 1일부터 해당 지역 어선의 출어를 금지하고 지방정부가 통합적으로 관리하기로 하였음
- 우수리강은 연어 산란수역으로, 매년 10월 초에 산란기에 들어선 연어가 우수리강의 중국측 수역으로 회유하여 산란하고 있음
 - 그러나 최근 과도어획으로 우수리강의 연어 어획량이 크게 감소하였는데, 통계에 따르면 1963년의 129만 마리에서 1999년의 15만 마리로 감소하였음
- 중국은 현재 각 해역별로 하계휴어제를 실시하고 있는 동시에 창장(長江) 춘계금어제를 실시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업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수리강에 대해 추가적으로 금어기를 설정한 것은 중국 정부가 어업자원보호를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으며 과감하게 대응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

<이은화, yhli19@kmi.re.kr>

■ 일본 수산청, 동해 명태 자원 격감으로 어획량 삭감 검토

- 수산청의 '2006년도 일본 주변수역의 주요어종 자원평가 결과'에 따르면 명태 자원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수산청은 오토츠크해 남부, 태평양, 네무로(根室)해협, 동해 북부 4개 계군에 대해 자원을 평가한 결과 4개 계군 모두 낮은 수준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 향후의 자원동향도 네무로해협 계군이 '정체', 다른 3개 계군은 '저하경향'인 것으로 평가되었음
- 수산청은 자원평가 결과를 고려, 내년도의 TAC를 설정하고 있는데 향후 명태 어획량의 대폭적 삭감 및 금어에 대한 검토도 필요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자원보호를 위해 현재의 어획량을 반감시키는 등 엄격한 규제책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일부에 대해서는 향후 금어조치를 취하는 것까지도 검토하기로 함

- 명태는 다양한 수산물가공품의 원료로 인기가 높아 전체 어획량이 많은 어종의 하나로, 남획으로 인한 자원상태 악화로 세계 각지에서 조업 제한조치가 취해지고 있음
 - 베링해의 명태조업은 1993년 이후 금어조치가 취해진 이후 현재까지도 자원 회복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 금어조치가 계속되고 있음
- 국내 명태 자원량의 격감으로 우리나라 신선냉장 명태의 거의 전량이 일본산으로 충당될 만큼 일본산 명태에 대한 의존도는 매우 높음
 - 반면 냉동, 필렛, 연육 등 명태가공품의 경우 미국, 러시아, 중국 등 다양한 국가로부터 수입되고 있음
- 일본산 명태의 생산량 감소는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 국내 신선냉장 명태시장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것인 만큼, 향후 명태자원에 대한 일본측의 조치를 주시하여 감산 또는 금어조치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임경희, imkh@kmi.re.kr>

■ 필리핀, 유기(organic) 밀크피쉬(milkfish) 생산으로 유럽시장 공략

- 필리핀 유기 밀크피쉬 생산업자들은 German Technical Cooperation(GTZ)과 협약을 통해 유럽시장으로 더 쉽게 접근하고 있음
 - GTZ의 기술적 지원을 받아서 필리핀 생산업자들은 인공 사료가 아니라 조류와 플랑크톤 같은 사료를 통해서 밀크피쉬를 생산하고 있으며
 - 이를 통해 현재 고부가가치나 유기 어류 같은 건강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유럽 시장에 적절한 가격으로 밀크피쉬의 점유율을 증대 시키고 있음
- 또한 현재 과잉 생산된 밀크피쉬로 인해 필리핀 생산자들과 수출업자들은 유럽과 같은 새로운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음
 - 하지만 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생산업자들이 엄격한 유럽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 인공 사료로 생산할 때 평균 10만 kg을 생산하는데 비하여 유기 밀크피쉬는 부화장마다 평균 600~700 kg의 낮은 생산량을 보이고 있어 이것으로 인해 생산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하지만 유럽의 이러한 엄격한 위생기준들을 충족시키고 유기 생산으로 특화시킨다면 유기 수산물 수요가 많은 유럽 시장으로의 수출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유럽의 M&S 매장은 라벨에 적혀진 가격만 보지 말고 이러한 제품이 유기농인지, 바다에서 남획한 고기인지 등에 대해 제대로 알고 소비하자는 운동이 일어

나고 있으며

- 수산물 역시 그린피스에서 인정받은 어류와 친환경 어류가 많이 팔리는 등 유기 수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가격 면에서 타 매장에 비해 10~50% 이상 비싸지만 건강과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자들의 인식변화로 인해 수요가 많은 편임
- 우리나라도 농산물의 경우 1997년 제정된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하여 품질인증기준이 마련됨으로써 현재 11개 인증기관이 설립되어 약 46만t의 유기농산물이 생산, 유통되고 있지만
 - 수산물에 대해서는 유기 수산물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완비되어 있지 않아 유기 수산물에 대한 생산과 유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 하지만 수산업계에서도 유기 수산물에 대한 인식 변화로 인해 2006년 2월에 ECO 수산물 연구회가 창립되는 등 유기 수산물 발전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강형덕, thymos@kmi.re.kr>

■ 미국 부시 대통령, 상무성에 공해상 트롤어업 규제 지시

- 10월 4일부터 5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UN 총회에서 트롤어업이 해양 생태계 파괴의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공해상 트롤어업을 규제하자는 내용이 거론되었음
 - 현재 UN 회의에서 트롤어업을 반대하는 국가는 브라질, 칠레, 독일, 네덜란드, 남아프리카공화국, 미국이며 스페인, 러시아, 아이슬란드가 트롤어업을 찬성하는 나라임
- 비슷한 시기인 10월 4일 UN 총회가 개최되기 직전 미국 부시 대통령은 공해상 트롤어업을 중단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트롤어업 규제를 위해 환경 단체 및 다른 국가와 협력할 것을 상무성에 지시하였음
 - 또한 미 부시 대통령은 공해상 트롤어업을 규제하기 위해 새로운 지역수산기구를 창설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하였음
- 공해상 트롤어업 규제에 대한 미 정부의 강경한 입장에 대해 미국 어민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인데, 공해상의 트롤어업이 규제되기 시작하면 연근해의 트롤어업에 대해서도 규제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하기 때문임
 - 지난 6월 부시 정부는 트롤어업 규제를 강하게 요구하는 환경단체의 압력 등으로 하와이 북서부 지역을 국립해양보호지역(Northwestern Hawaiian Islands Marine National Monument) 으로 설정하고 트롤어업을 규제하고 있음

- 이와 같은 국제 정세를 볼 때 공해상 트롤어업 규제가 국제기구 차원에서 가시화 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그린피스 등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번 UN 총회에서 트롤어업 규제 문제를 이끌어 내기 위해 활발한 로비 활동을 펼쳤음
- 이번 기회를 시작으로 미국 내에서 트롤 어선 등 어업 구조 조정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트롤 어업에 대한 국제 사회의 압력에 대비해야 할 때임

<정명화, jmh@kmi.re.kr>



간추린 지구촌 소식

■ 광둥성, 정책성이업보험제도 도입

- 광둥(廣東)성 어선선주보호협회는 어업보험기금을 조성하여 전면적으로 정책성이업보험제도를 도입할 계획임
 - 정책성이업보험은 상업보험, 사회보험과는 달리 중앙정부 예산이 30%, 지방정부 예산이 20%, 개인이 50%를 부담하는 것임
-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어업 사망률은 0.14%로 건축업 사망률의 35배인데 기타 산업의 사망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톈진시, 고급수산물 생태양식기지 건설

- 톈진(天津)시는 빈하이(濱海)신도시에 고급수산물 생태양식기지를 건설할 계획인데
 - 양식장 면적이 50만 m²로 국내외 고급수산물을 100여 종 도입할 예정임

■ 저우산시, 일본산 쫄면 무기비소 잔류 심각으로 반품

- 저우산(舟山)시 검역국에 따르면 최근 수입한 72톤의 일본산 쫄면에서 무기비소 잔류가 심각하여 일본으로 반품하였음
 - 반품한 일본산 쫄면에서는 중국 국가기준의 22배인 kg 당 2.22mg의 무기비소가 검출되었음

■ 일본, 가공식품의 원산지표시 의무화 확대

- 가공식품품질기준 개정에 따라 10월 2일부터 20개의 가공식품에 대해 주요 원재료의 원산지표시가 의무화되었음
 - 기준 개정은 2004년 9월 14일에 시행, 약 2년간의 이행기간을 거쳐 실시된 것으로, 표시 의무가 20개 식품으로 확대되었음
 - 제조사는 원재료가 자국산인 경우 '국산' 등으로 표시하고 수입품인 경우 원산국가명을 표시해야 하며, 산지가 복수인 경우에는 중량이 무거운 순서대로 국가명을 기입하고 가공지와 원료원산지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함

■ 일본 식품손실률 조사 결과, 어개류의 손실률이 세 번째로 높아

- 식품의 폐기 및 잔사를 의미하는 식품손실률 조사에서 세대 1인 1일당 어개류의 식품손실률은 7.3%로 과실류, 야채류에 이어 세 번째로 높고, 평균 식품손실률(4.1%)도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됨
 - 어개류 손실률의 세부 내용은 과잉제거 4.8%, 잔사 2.3%, 직접폐기 0.2%로 구성됨
- 또한 조사기간 1주일 중 조리, 섭취한 식품의 출현횟수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주요 반찬 부문의 경우 어개류가 점심, 저녁식사시 제공되는 횟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오카(飯岡) 정어리가공·판매협의회, 멸치 고품질 상품 개발 성공

- 일본내 주요 멸치산지인 치바현 아사히시(旭市)에 위치한 이오카 정어리가공·판매협의회는 어협 등과 공동으로 이오카 어항에서 양륙된 멸치의 고품질 상품 개발에 성공하였음
 - 상품의 핵심기술은 해빙을 이용한 어획물의 즉살기술, 굴패각숙성소스 제조법 두 가지로, 연내에 초밥재료 및 횡감 등에 대한 양산체제를 정비하여 내년 이후 전국 판매를 준비하고 있음

■ 미, 베링해 왕게(King crab)와 대게(snow crab) 쿼터량 감소

- 알래스카 어업 당국에 따르면, 미국에서 가장 큰 어장인 베링해(Bering Sea) 수역에서 왕게와 대게에 대한 어획 쿼터량을 줄였음
 - 비록 게 자원이 현저하게 증가하였지만 자원 보존을 위해 2006년 10월 15일부터 2007년 1월 15일까지 왕게에 대한 쿼터량을 작년에 비해 15% 낮췄음

■ 베트남, 냉동 어류와 냉동 새우가 주요 수출품

- 냉동 어류가 냉동 새우 수출 다음으로 가장 많이 수출된 품목이며, 작년 같은 동기에 비해 21%의 수출 증가세를 보였음
 - 베트남 정부는 특히 일본, 미국, 중국, EU, 러시아, 동유럽 나라들의 수산물 수요의 증가로 인해 올해 말까지 수출이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음

■ 인도네시아, 올해 새우 생산 감소

- 인도네시아 새우 수출업자들은 올해 생산이 목표로 했던 생산량의 2/3인 35만 톤

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음

- 이러한 생산량의 감소는 올해 6월부터 8월까지의 새우 성장에 악영향을 주었던 좋지 않은 날씨 때문인 것으로 추측함

■ 칠레, 올해 해조류 가격 상승으로 수출 수익 증대돼

- 올해 1월부터 7월까지의 칠레의 해조류 수출은 7,600만 달러로 전체 수출 수익의 3.7%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작년 수출액보다 12% 증가한 것임
 - 수출 물량은 4,200톤으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나 톤당 가격이 증가하였기 때문인데, 우뭇가사리의 경우 톤당 가격이 19.5달러로 작년보다 39%, 건조 해조류는 톤당 832.5달러로 작년 대비 4.8% 증가하였음

■ 스페인 갈리시아 정부, 청정해역에서 생산된 홍합 홍보위해 약 7억 원 투자

- 스페인 갈리시아 정부는 EU 최초로 PGI(Protected Geographical Indication) 규정에 따라 생산된 홍합을 소비자에게 홍보하고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 연방 해양수산부 및 홍합규제위원회와 협정을 체결하고 60만 유로(7억 원)를 투자하기로 하였음
 - PGI는 우리나라의 청정보호구역과 비슷한 개념으로 여기서 생산된 수산물로는 스페인 갈리시아의 흑홍합이 해당됨
 - 갈리시아 정부는 흑홍합의 원산지를 분명히 소비자에게 인식시켜 상품 차별화를 꾀한다는 전략을 세웠으며, 이를 통해 수출을 확대하고자 함

■ 미국 NOAA 패널, 2007년 가자미류 쿼터량 삭감 권고

- 미국 해양대기관리처(NOAA)에서 위임된 패널은 과잉어획을 억제하고 매그너슨-스티븐법에 의한 자원회복계획을 위해 현재 가자미류에 할당된 쿼터량 2,400만 파운드를 40%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였음
 - 가자미류는 미국의 자원회복계획에 포함된 어종으로써 현재 쿼터량 외에 어획최소크기, 어구 제한, 접근제한지역 등의 관리가 이뤄지고 있음
 - 2000년부터 2010년까지 10년간 시행되는 자원회복계획에서 가자미가 완전히 회복되는 어족 수를 1억 9천 7백만 파운드로 보고 있는데, 현재 자원량은 1억 4백만 파운드로 예상하고 있음